

시·도지사후보 연쇄인터뷰

전남지사 민주노동당 박웅두

개혁성 갖춘 도백이 '농도 전남' 희망

-민주노동당 전남지역 당원 투표에서 93.1%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후보에 당선됐다. 왜 자신이 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선거의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가.

▲5·31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는 농업 회생과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위기의 전남을 희망의 전남으로 탈바꿈시켜내기 위해 전남도민 전체의 소중한 의지를 모아내는 장이어야 한다. 생가 있는 희망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농민,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다.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당 지지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공천비리와는 무관한 깨끗한 정당으로 개혁성, 실천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유리할 것이며 막판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농민운동에 투신해왔다.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각 국과 FTA(자유무역협정)가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농촌과 농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릴 대안은.

▲농도 전남은 쌀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농업·농촌의 몰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농업의 위기는 전남의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도민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농업·농촌의 해체, 사회양극화의 확대를 부채질하는 한·미 FTA를 막아내고 직불제 확대와 지역농산물유통센터, 외국산·미국산 없는 청정 전남,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농업수도 건설을 통한 전남발전



추진공통체 파괴와 도시의 연쇄 몰락을 막고 올 것이므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형프로젝트와 외자유치가 전남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과장되었다. 대규모 개발과 기업 유치 및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균등 분배의 문제이다. 최근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 1996~2004년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보고'를 보면 경제 성장의 열매가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아 성장우선주의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도록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철폐해 나가는 것,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정, 소외 없는 복지를 중심으로 도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는 공무원노조 즉 현직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은 큰 실수이다.

-전남도내에서도 지역간, 시·군간 발전이 균형을 잃어 낙후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이 적지 않다.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은?

▲전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조선산업과 물류항만기지, 지방산단 활성화, 핵심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의 틀은 정당간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중부권의 경우 근교 농업의 특성을 살려 친환경농업과 직거래를 통한 생산농가 소득 보장책을 적극 실시하고 생태와 체험 중심의 관광육성, 친환경농자재 및 종자연구·시범생산단지를 집중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차기 전남지사가 풀어나가야 할 전남의 현안 다섯가지를 꼽는다면.

▲현재 도민들은 희망 없는 농업, 가난과 소외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먼저 농업회생이 절실하다. 한·미FTA 체결을 막고 농가소득 보장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을 비롯한 빈곤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현대하이스코 사태 해결, 도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고 있는 골프장·레저단지 등 성장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이주여성, 조손(祖孫)가정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복지사업이 절실하다.

-프로젝트, 즉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과 관련 투자회사의 원금 보장과 카지노 개설, 환경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골프장과 카지노·F-1 등은 환경파괴와 도박, 향락을 부추기는 사업계획으로 투자회사의 원금보장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도민들의 이익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지 면밀하고 투명하게 재검토해야 하며 도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전면 수정해야 한다. J-프로젝트는 외자유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건전한 자본의 유치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는 조건에서 친환경, 생태, 농업이 어우러진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관광과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목포와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의 시 지역은 원(구)도심과 신도심의 발전 격차가 커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지역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막고 재래시장

카지노 설치·F-1 등 면밀한 재검토 필요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시급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생태공원이나 도서관 등 문화 공간도 조성해야 한다.

-노동자·농민·서민들이 도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극소수의 부유층을 위해 그동안 대다수의 노동자·농민·서민은 차별, 억압, 회생을 강요받아왔다. 사회의 근본인 이들이 언제까지나 약자라면 있어서는 안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낡은 기존 권력 중심의 정치를 심판하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노동자·농민·서민이 만들어가는 희망 전남을 건설하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에선 이번 선거에 후보를 어느 정도 낼 계획인가. 지사 후보로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와 연대 방안은.

▲선거에서 후보를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아무나 출마하게 해서 안 된다. 현재까지 전남에선 기초단체장 후보 3명과 광역의원 5명 등 모두 41명의 후보가 확정됐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일부 지역의 경우 30% 이상도 득표가 가능하며, 광역의원도 최소한 3명은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다른 정당과는 달리 전 당원이 함께 선거를 치르며, 나아가 광범위한 대중단체들과 함께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쌀·비정규직 투쟁에서 보여준 민주노동당의 진심을 기억해달라. 농민과 노동자, 서민의 눈으로 정책을 제시해 가난과 차별이 세습되지 않고 삶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희망 전남'을 만들겠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결어온 길

농민운동 외길 걸어온 '정책통'

1968년 진도에서 반농반어(半農半漁)로 생계를 유지하던 민농의 아홉 남매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광주 진흥고 졸업 이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전남대 농대에 입학했다.

곧은 성격이었던 그는 학생운동에 적극 가담해 군부독재에 항거했고 박종철 고문치사 규탄대회와 관련 구속되기도 했다. 졸업 후 농촌활동에서 맺은 인연으로 곡성농민회 사무국장직에서 농사를 거둔다 경운기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불운을 당해 군대도 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1990년 곡성으로 이사해 농사를 짓고 농민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광주·전남 정책실장, 곡성군농민회 부회장, 전농 정책위원장, 북녘통일쌀보내기 광주·전남운동본부 기획실장,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대책위 농어업정책 점검평가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농민자 농민운동가로서 한 길을 걸어왔다. 전국을 무대로 농민운동을 하면서 시민·사회·종교·예술계의 진보적 인사들과 교분을 나눴으며 넓은 식견을 가진 '정책통'으로 인정받아왔다.

매사에 소신이 분명하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이 강점. 그러면서도 친화력이 높고 합리적인 일처리로 정평이 나왔다. 이를 높이 평가한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제의를 받아 도지사 후보로 나섰다.

좌우명은 이민위천(以民爲天). 1남2녀를 두고 있다.

공약

'희망 전남'을 만들기 위한 농업수도 건설 등 4대 과제가 핵심이다.

농업전문가에게 농업을 중심으로 전남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농업수도 건설'이 으뜸 공약이다. 농가소득 직불제 도입과 농지은행 및 농기계은행 확대 시행, 농산물 가격안정 긴급구제자금 조성 등을 비롯 ▲DSC(미곡건조·저장시설) 확대 설치(1군 3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밭, 콩, 조식료 재배 확대 ▲전남농산물 대북지원 확대 및 상호 교류 실현 등으로 농도 전남의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균형발전'. 지역경제고용위원회 설치,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개발 이전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J-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도박·향락 산업 배제와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등 생태와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난과 소외, 차별의 세습 없는 희망 전남'을 만들기 위해 1시간 1공공병원 건립과 무상급식 실현, 보육조례 제정,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5% 준수,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여성 고용가산제 도입, 이주여성 대책 등 복지분야 공약도 내놓았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의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무원 노조와 정례회의, 참여예산제 실시, 농촌버스공영제, 광양향 미군병참기지화 반대, 전남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6·15공동행사를 통해 '자치와 진보'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angsan Hwan' (당산환) medicine, featuring a list of ailments like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Dangsan Hwan' (당산환) medicine,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the slogan '당선확신!!' (Confidence in Election!!).

Advertisement for 'J2V' (전림선) products,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the slogan '전림선 J2V'.

Advertisement for 'Jungdong' (경동) products,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the slogan '경동 전기보일러·온수기'.